

# 당당히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면 새 아버지 이씨의 사연

노순동 / 시사저널 기자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취재원에게 깊은 인상을 받을 때다. 지난 3월 한 재혼 가정의 남매가 새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그랬다. 다들 편법으로 해결한다던데,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새 아버지 아무개씨가 인터뷰를 허락하자 기묘한 설레임마저 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무개씨는 '확신범'이었다. 자신은 초혼이고, 자녀 둘을 데리고 재혼한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자녀들이 바깥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싶어했지만 편법은 싫다는 고집을 갖고 있었다. "사실 편법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가 굵은 아이들인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유림 축의 반발이 커지면 소송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는 이른바 '전문가'로 부터 다양한 비책을 귀땀받았다. 아이의 사망 신고를 한 뒤 자신의 아이의 출생 신고를 늦게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아원 등에서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가짜 입양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많았다. 공식적인 법 체계는 모른 채하는 가운데, 뒷구멍으로 각자 수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도리질을 쳤다. 죄짓는 것도 아닌데, 법대로

하자. 법이 문제면, 법을 바꾸자.' 통념의 잣대로 보자면 그는 중뿔난 사람일 것이다. 편한 길을 놔두고 일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씨는 재력도 있고, 조력자도 많았다. 반면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쉬쉬하면서 편법을 동원하기 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행위는 꿈절로 인상적이었다.

이혼율 30%시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재혼 가정의 성(姓) 문제는 더 이상 모른 체할 수 없는 사회 문제임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당연한 고통이라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는다. 나아가 '그런 불편이라도 있어야 이혼이 억제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씨를 만났던 바로 그 주에 이혼을 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는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이 친권도 포기하겠다고 해서 당연하게 내 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 바보스러웠다'라고 말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당연한 기대와 한국 사회의 주류 상식은 이처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법은 그 격차를 모른 채하면서 '그러길래 누가 이혼하래? 정 문제가 급하면 편법을 동원하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격이다. 다행히 새 정부들어 법무부가 친양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뒤 행여 아이들의 신원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던 이씨의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PPFK